

광주시, 도심 공원·녹지 지키기 집중

5천억 들여 부지매입·민간특례 추진 광주 비공원시설 9.6% 전국 '최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재정공원 사업'을 투트랙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도심 공원과 녹지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광주시가 직접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곳(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 황룡강대사, 영산강대사, 화정, 운천, 송정)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 9곳(수랑, 마북, 송암, 봉산, 일곡, 중의, 중앙, 신용, 운암산)이다.

모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상으로, 개인 소유인 사유지(공원)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됐던 곳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4867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 등 재정공원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도 737억원을 투입해 보상대상 사유지 96

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절차가 끝나면 총 보상 규모는 79만7000㎡로 사유지의 83%를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사유지 20만㎡는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직접 매입하고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전체 부지 중 사유지가 평균 70.1%를 차지하고, 나머지 29.9%가 국·공유지다.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보상비만 무려 4598억원이 소요된다.

민간업체와 공동 개발에 나서는 민간공원 사유지 비율은 재정공원보다 높다. 9개 민간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은 81.5%다. 수랑공원 96.7%, 신용공원 95.2%, 송암공원 93%, 일곡공원 89.7% 등이다. 여기에 드는 보상비만 1조 6194억원으로 추산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사업지 가운데 일부를 비 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파트 건설 수익으로 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그 소유권을 광주시에 넘

기는 개발 방식이다.

도시공원법상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시의 비공원 시설 비율은 전국 평균 비율(19.9%)의 절반도 안되는 9.6%이며,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는 아파트 건립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돌아갈 공원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 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지난해 기준 6.3㎡에서 2027년에는 12.3㎡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부 시민들이 도시공원에 왜 아파트를 지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면서 "만약 광주시가 공원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원 부지 소유자들이 땅을 난개발하고 공원과 녹지도 심각하게 파괴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뿌리산업 선도기업 대폭 확대

정밀가공·센서 등 6종서 14종으로 기술 개발·디지털 전환 등 적극 지원

전남도가 내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지난 2021년 말 뿌리공정기술이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종에서 정밀가공, 센서 등 14종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전남도는 뿌리공정기술 확대를 전남 뿌리기업 지원 대상이 기존 817개사에서 1270개사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30억원 증액된 90억원을 확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육성사업은 ▲차세대 뿌리산업 기술개발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판로개척 ▲특허 획득 ▲전문기업 지정 등이다.

특히 전남의 미래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우주발사체, 항공, 미래도심항공교통(UAM) 등 산

업과 관련된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기업연구소 등이 없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뿌리기업에 대해서도 뿌리기술 전문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 맞춤형 기술개발과제, 전문가 컨설팅,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내내 뿌리산업 현황 분석, 미래 뿌리산업 육성전략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남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상반기까지 수립해 지역 뿌리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84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매출액 증가 425억원, 신규고용 166명, 특허출원 40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미소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뿌리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뿌리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사업 설명회

성공적 사업추진 방향 의견 교환

전남도는 19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추진사업 설명회'를 열고 관련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한국관광개발연구원, 22개 시·군, 지역 관광문화재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은 남부권을 중심으로 영·호남 5개 시·도를 잇는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 지역 관광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

난해 정부 발표 뒤 문체부장관과 5개 시·도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3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 뿐 아니라 올해 1단계 29개 개발사업의 설계 착수와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군, 관계 기관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전남도는 1단계(2024~2027) 25개 개발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된 데 따라 올해 설계비로 105억원의 국비(지방비 105억 원 별도) 예산을 확보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12조원 규모 내년 국비 확보 시동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 126건 사업 발굴 내용 공유 김영록 지사 "지방소멸 위기 극복·균형성장 위해 총력"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국립 씨름선수원 건립, 국립 김 산업 수출진흥원·물류단지 조성, 국립 불교문화유산원 건립...' 전남도가 미래 지역발전의 이모저모를 신규사업 126건을 발굴,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2025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고 126건의 신규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126건의 신규 사업 총사업비는 12조 2193억원 규모로, 이중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예산 건의액은 4901억원이다. 지역 핵심 현안으로 내년도에 계속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3조 2270억원(281건) 규모로, 올해 확보액(2조 4546억·270건)에 비해

7724억(11건) 늘었다.

전남도는 국비 9조원 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신규·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음달까지 건의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담당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방문 및 설명(-4월), 기재부 예산 심의 대비 사전 설명(5-6월 초), 부처 미반영 예산에 대한 기재부 집중 설명(6월), 국회 차원 집중 공략 등의 전략을 세워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총사업비 450억·국비 300억) ▲우주항공·무인기 분야 방산특화 생태계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총사업비 490억·국비 245억) ▲나주 극한에너지반도체 R&D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20억·국비 210억) ▲나주 그린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280억·국비 196억) 등이 신규사업에 올랐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10억) 등도 예비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거나 통과되도록 힘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의 4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글로벌대학30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195건의 공모사업에도 꼼꼼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고예산 확보는 전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0대 4명 중 1명 '취업자'...전체 5.6% 차지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4000명이었다. 이들 중 취업자는 155만명이었다. 1년 전(139만1000명)과 비교하면 11.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5.1%에서 올해 1월 5.6%로 늘었다.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였다.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급적이면 운영하는 사업체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의미다.

75세 이상에서도 전체 403만명의 인구 중 75만6000명이 취업해 1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은 농업·어업·임업 분야로, 전체 취업자 중 30%를 차지했다. 직업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업·어업·임업 종사자(29.6%), 서비스 종사자(7.8%) 등이었다.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65~79세 노인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5.7%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 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코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뭣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매매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원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